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1일, 이철규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1.)

직접회부,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2.26.)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2025.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철규의원)

반도체는 21세기 4차산업혁명 · 디지털 ·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산업 주도권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과거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세계 반도체산업 질서는 설계와 지적재산권, 소재 · 부품 · 장비, 위탁생산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가별 ‘분업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최근 AI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선진경쟁국들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국가의 운명을 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여기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투자 유치와 자국 내 생산시설 건설, 수출확대 등에 총력태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간에선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제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 수출도 20%대를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도 장악해왔지만, 시장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세 배 이상 되는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세계 반도체 패권경쟁 및 동맹의 재편과 기술 경쟁 등이 겹쳐 K-반도체 전망은 불투명하며 차세대 반도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확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3.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4.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5.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